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기치를 안겨주시여

6월은 겨례의 통일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는 환희와 격동의 달이다.

11년 전 역사적인 6·15 북남 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북남관계는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북과 남사이에 오랜 기간 달렸던 문이 열리고 대화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각계층의 수많은 동포들이 북과 남을 오가게 되었다. 평양과 금강산, 서울, 제주도를 비롯한 곳곳에서 민족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고 통일의 핵심이 삼천리에 메아리쳐졌다. 분별의 장벽에 파렴장을 내며 끊어졌던 철길과 도로가 이어지고 남조선인민들이 통일이전에 금강산을 관광하는 회한한 사변도 펼쳐졌다.

6·15시대에 이런 놀라운 사변과 성과들이 있은 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통일애국의 기치를 겨례에게 안겨주신 분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다.

돌이켜 보면 역사적인 6·15 북남 공동선언에 큼직하게 새겨진 우리 민족끼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투철한 민족자주정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고귀한 결실이었다.

주체 89(2000)년 3월 삼천리의 지맥을 거느리고 우뚝 솟아 있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펼칠 통이 큰 구상을 확정을 하시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4·8 북남 합의서가 발표되고 6월에는 분별 55년만에 처음으로 되는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평양상봉의 나날 남측 수뇌분에게 지난 시기 북과 남사이에 이미 합의한 좋은 문건들이 많다고,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리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시고 이번에 내용은 문건은 2000년대를 맞이하는 첫 해에 우리가 처음으로 상봉하는 것 만큼 겨례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탁판을 주는 것으로 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6·15 북남 공동선언에 서명하시는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 89(2000)년 6월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번에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지난 시기의 유물을 려어버리고 원칙은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선언적이고 지향적이며 희망적인 문건을 내놓아야 한다고, 그러니 구시대의 유물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2000년대에 우리 민족끼리를 공동의 리념으로 하여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주적으로 실현한다고 천명하자는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하였다.

하여 6월 15일 새 세기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이 재택발표되고 이 땅에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역사가 만들어졌다.』

『6·15 공동선언은 김정일국방위원회 민족자주정신이 안이온 통일의 리정표』…

이것은 겨례가 터친 심장의 웨침이고 6·15 찬가였다.

뜻깊은 한해가 저물고 다음해인 주체 90(2001)년 1월 경애하는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15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민족적 단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6·15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물지 말고 다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가르

쳐주시었다.

그이의 이 말씀에는 6·15 북남공동선언이 밝힌 민족자주와 단합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옮려세워나감으로써 자주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실현하고자 말 것이다.

본사기자 최석현

6·15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된 때로부터 11년이 되어온다.

돌이켜 보면 반세기 이상이나 불신과 대결의 가슴아픈 역사가 흐르던 이 땅에서 처음으로 북남수뇌분들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6·15공동선언이 재택된 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경이적인 사건이었다.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됨으로써 새 세기 자주통일의 리정표가 마련되고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지난 시기에는 상상초자 할수 없었던 놀라운 전변들이 이룩되게 되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서 북남사이에는 상급회담을 비롯한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졌다. 두렵게 얼어붙었던 분별의 장벽에 파렴장을 내며 하늘길, 땅길, 배길을 여는 장쾌한 사변들도 일어난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수행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숭고한 민족애와 통일의지를 지니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멸불후의 탁월한 영도를 떠나서 결코 생각할 수 없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여 우리 겨례에게 통일된 조국을 기어이 안겨주실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회담을 정력적으로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민족끼리를

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시여 온 겨례에게 커다란 기쁨과 신심을 안겨주시였으며 불쾌의 선군정치로 외세의 끊임없는 반공화국고립압살책 등을 걸어마다 짓부서버리고 공동선언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6·15공동선언을 리행해오는 나날에 북남관계사상 또 하나의 사변인 역사적인 10·4선언을 마련하시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루는데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해주시였다.

참으로 온 겨례가 지지하고 받드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이끌어오신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력사와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으로 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것은 오늘 우리 민족끼리에게 이것은 민족공동의 통일리념이다.

해내외의 온 겨례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맞게 투철한 자주정신을 가지고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후 활烈하게 전진하던 겨례의 통일운동은 남조선보수당국의 악랄한 동족대결책 등과 전쟁소동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딪쳤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집권초기부터 조국통일의 대강이며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였으며 북남관계를 국도의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몰아갔다. 현시기 리명박보수『정권』의 무보한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더욱 수습할 수 없는 파국상태에 처하였다. 민족의 자주통일지향에 역행하면서 겨례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지나온 나날들과 오늘의 현실은 6·15의 길만이 민족의 살길이고 평화와 통일번영의 길이라는 력사의 진리를 뚜렷이 깨우쳐주고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민족모두가 통일을 이루할 때까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대강이며 지침이다.

북남공동선언을 떠난 북남관계개선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다. 오늘의 파국적인 북남관계현실은 바로 남북당국의 6·15정부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북남관계를 바른 궤도에 다시 옮겨세우고 발전시켜나가고 해도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리행해야 한다.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이며 이것은 민족공동의 통일리념이다.

해내외의 온 겨례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맞게 투철한 자주정신을 가지고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

민족의 자주성, 나라의 통일은 민족중시의 텁장에 확고히 서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며 적극 옹호해나갈 때 실현될 수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사대와 외세의 존을 철저히 반대해하며 민족적 단합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민족의 자주통일지향에 역행하면서 겨례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

을 돌아오고 있는 반통일대국세력의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 등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의 현 『정권』은 동족대결을 『원칙』으로 떠들어대면서 끝까지 민족의 통일지향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서고 있는 극악한 동족대결 『정권』이고 반통일집단임이 날날이 드러워졌다.

남조선보수당국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개선은 고사하고 전쟁의 참화밖에 초래될 것이 없다. 공화국은 이미 남쪽의 대결 『정권』과 더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남조선의 대결세력들에게 차례질 것은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례는 6·15의 기치밑에 일치단결하여 반통일전쟁세력을 단호히 면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지만 회세의 위인이 계시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 빛을 뿐이 있으며 북과 남의 광범한 통일에 국세력이 있어 자주통일의 승리를 확정적이다.

이 땅의 통일을 안아오는 주인은 다른아닌 7천만 우리 겨례이며 통일이 언제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은 결국 겨례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례는 뜨거운 민족애, 통일열의를 가지고 거족적인 자주통일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조국통일의 력사적 속원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잊지 못할 2000년 6월의 그날, 봄날의 눈색이처럼 대결과 분열의 차디찬 열음장이 녹아내리고 통일의 열풍이 백두산에서 한나까지 삼천리강토에 차넘치던 그 현실앞에서 우리 겨례는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경계에 설레였던가. 이 땅에 밝아온 6·15통일시대의 아침을 감격과 홍분속에 맞이한 남녀겨례들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 품모를 직접 목격하고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토의 정으로 가슴 불태웠다.

그나날에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

위인의 명필체

6·15북남공동선언문에 서명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필체를 TV를 통하여 보게 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그 필체에 어린 절세의 위인상에서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그때부터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필체대로 글쓰기를 가르치는 일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특별 매대

역사적인 평양상봉정을 통해 남조선인민들은 수수한 잡바웃차림을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이 겸허하신 모습을 걱정 속에 뵈옵게 되었다. 가슴속에 차넘치는 그이에 대한 뜨거운 경모심을 금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속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입으시었던 것과 같은 잡바웃을 입는 경쟁바람이 일었다.

이렇게 되자 남조선의 백화점들에는 그려 한 잡바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매대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경모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심정을 반영하여 장군님의 영상사진을 정중히 모시고 순님들이 그곁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특별매대는 나오자마자 매일 초만원을 이루었다고 한다.

TV 앞에서 떠나지 못한 3일

시위투쟁과 최루탄으로 유명한 남조선에서 시위가 전혀 없었던 때가 있었다.

바로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진행되던 3일동안 남조선에서는 단한건의 시위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TV로 방영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뵈오

본사기자

자주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밝아온다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반드시고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사변이 아로새겨진 6월이 왔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의 리정표로 되는 6.15 북남공동선언을 크나큰 격정과 환희 속에 받아안게 되었다. 잊지 못할 혁사의 6월이 있어 이 땅우에는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 6.15 통일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은 희망과 신심에 넘쳐 자주통일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올 수 있었다.

하기에 뜻깊은 6월을 맞는 온 계례의 가슴가슴은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철석의 통일의지를 지니시고 우리 민족끼리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뜨거운 감사의 정으로 물결치고 있다.

온 민족과 전세계를 격정과 환희의 도가니로 들끓게 한 2000년 6월의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의 책략!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석의 통일신념과 의지,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었다.

주체 83(1994)년 10월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100일 중앙추모회가 끝난 후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생전에 조국통일을 그처럼 간절히 바라시였지

만 통일의 그날을 보시지 못하고 서거하셨다고 동절히 말씀 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을 이루는 것은 수령님의 유훈이며 온 민족이 통일된 조국에서 화목하게 잘살도록 하시려는 것이 수령님의 뜻이었다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조국통일의 혁사적 위업을 기여해 성취하여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꽂아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판찰하려는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당시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하고 련이어 자연재해까지 겹친데다 제국주의자들의 포위 암살책동으로 하여 공화국은 류폐 없는 시련과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지만 남들 같으면 열번도 주저앉았을 그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리고 과감히 뛰고나가시였다. 인민군인들이 지켜선 조국의 고지를 찾아 철령을 수없이 넘고 넘으시였으며 아찔한 칼벼랑길도 오르시고 풍랑을 헤치며 섬초소도 찾아주시였다.

오늘도 우리 민족은 1996년 11월 24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날 혁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아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

서 우리 인민들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였는데 나는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조국을 우리 인민들에게 반드시 선물하려고 한다고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려움과 난관이 가로놓여도 그것을 물리치고 조국을 기어이 통일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을 풀어드리고 분별의 고통속에 신음하는 우리 계례에게 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석 같은 의지의 선언이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뜻대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하여 조국을 기어이 통일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찰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도덕력히 어려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들에서 비록 파거에는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오늘에 와서 진심으로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을 대해서는 파거를 묻지 않는 원칙에서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것이라는 것과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도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

기 또한 뜨겁다고 하면서 《이런 기세라면 반통일세력들을 꺾고 반드시 6.15공동선언을 리행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범민련 남북본부는 2일 성명을 발표하여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6.15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의 공동보도문에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6.15평화통일민족대회의 성사를 위하여 적극 실천하고 힘있게 투쟁》 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성명에서는 6.15공동선언의 발표 이후 열쳐졌던 북파남사이의 경이적인 현실들을 감회깊이 돌아켜보면서

6.15선언리행의 웨침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기념일이 다가올수록 남조선의 각계각층속에서는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여 통일위업을 전진시켜나갈 의지가 더욱 굳세어지고 있다.

남조선에서 지난 5월 11일부터 시작된 《자주통일통성단》 현장에서도 6.15공동선언의 리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울려나왔다.

통성에 참가한 전주출신의 한 인터넷가입자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6.15공동선언이 리행될 때 가능하다.》고 하면서 6.15공동선

언리행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였다. 함께 참가한 인터넷언론사의 한 대표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도 죄인으로 둑고 감옥에 넣는 보안법을 폐지하고 6.15공동선언리행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힘있게 주장하였다.

지금 이 《자주통일통성단》에는 《보안법 폐지 자모임》 회원들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사무국장은 통성에 참가하는 인원이 늘어가고 열

6.15정신의 소중함을 되새기었고 6.15평화통일민족대회를 반드시 성사시켜 우리 민족끼리의 힘을 파악해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남조선의 《자주민보》는 지난 4일 《높아가는 6.15선언리행의 웨침》이라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하여 초래된 전쟁분위기에 반발하여 더욱 거세지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회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가 6.15공동선언리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본사기자

북남공동선언은 자주통일의 대강

지금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책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엄중한 시련과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계례가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가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 리행하여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통일함성이 온 삼천리를 진

감하는 가운데 북파남사이에

는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들

이 진행되고 민족공동의 통일

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어 우

리 민족의 자주통일의지를 내

외에 힘 있게 파악하였다.

군사분제선철조망을 끊어버리며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려 북

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민족공조의 통일대하가 도도히

굽이치고 통, 서해선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 것과 같은 사

면도 일어나 민족적화해와 단

합을 촉진시켰다.

정녕 혁사적인 6.15공동선

언이야말로 우리 민족끼리 힘

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

을 이루하고 이 땅우에 번영하

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

의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정도

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께서

마련해주신 민족공동의 통일강

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 있어 우리 계례는 신심드

높이 자주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벌려울 수 있었다.

온 계례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자주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앞당겨오고야 말것이다.

손송죽

6.15북남공동선언이 체택발표된 이후 북파남, 해외의 온 계례는 우리 민족끼리의 대명제 아래 민족적화 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이루하기 위한 투쟁을 풀어차게 벌려왔으나 그 과정에 커다란 성과들을 이루하였다.

그러나 반 6.15세

력의 방해책 등으로

하여 북남공동선언

을 리행하는 길에

는 의연히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

고있다.

반 6.15세력이란

6.15공동선언의

체택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선언의 기본정신을 부정하고 그

행에 온갖 훼방을 노는 세력을

한다.

6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민족이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행아닌 우리 나라의 통

일을 한사코 가로막아온 미국과 그에 공조하는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때문이다.

미국은 처음부터 6.15북남공동선언을 인정하지 않았을뿐아니라 그 무슨 《핵문제》를 운운하며 북침전쟁개발과 반공화국립 암살책동을

일어나는 세력은 대북남관계를 철저히 리행으로써 내외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의 혁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조선불교도련맹 종양위원회 책임부원 김훈

하의 통일》을 공공연히 떠들어대고 그 무슨 《금번사례》니, 《비상통치계획—부홍》이니, 《통일세》니 하며 《흡수통일》의 허황한 꿈을 꾸고있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동족대결소동은 도를 넘어 공화국의 사회주의체제를 헐뜯고 외세와 아합한 북침전쟁연습을 련일 벌리다 못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표적까지 만들어놓고 총포탄을 쏘아대는 천추에 용납 못할 광기를 부리는데까지 이르고있다.

리명박보수 《정권》의 특대형도발행위로 말미암아 지금 북남관계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최악의 상태에 처해있다.

현실은 북남공동선언을 고수리행하는 길만이 민족의 살길이고 평화와 통일의 길이라는 것을 응변으로 실증하고있다.

우리 민족이 통일의 길로 가는데서 북남공동선언들이 밝힌 길에 다른 길은 없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남조선에서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변하지 말아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기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다. 바로 여기에 민족의 자주도 있고 나라의 평화도 있으며 조국통일도 있다.

북파남, 해외의 온 계례는 민족공동의 통일리정표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만이 절대적인 진리이며 통일은 바로 이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남조선보수당국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혁사적인 선언들을 그 무슨 《대남전략의 산물》이니 뛰어나게 벌여놓은 《비핵, 개방, 3000》파워를 들고나와서 쟁여온 북남관계를 대화도 협력도 교류도 없는 극도의 대결관계로 몰아놓았다. 그런가하면 북파남이 합의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북남공동선언들에 전면 배치되게 《자유민주주의체제

러기 모략국, 날조국들을 련이어 꾸며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이끌어갔으며 각종 군사연습을 발광적으로 벌여 민족의 머리우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새 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현시기 6.15를 지지하는 세력은 통일국세력이고 6.15를 반대하는 세력은 대결전쟁을 추구하는 매국세력이다. 온 계례의 지지찬동을 받고있는 북남공동선언에 역행하고 도전하는 세력은 남조선의 한줄도 안되는 대결세력뿐이다. 6.15지지세력은 대결세력을 훨씬 압도하고있으며 따라서 통일에 국세력이 분열매국세력을 타승하고 계례의 통일위업이 승리하는 것은 달리는 될수 없는 혁사의 필연이다.



6. 15의 도도한 흐름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 거레는 통일과 반통일 사이의 대결이 극도로 침에 한 준엄한 정세속에서 역사적인 6. 15공동선언 발표 11돐을 맞이한다.

나라가 분열되어 처음으로 이루어진 2000년 6월 북남수뇌상봉과 6. 15공동선언의 발표는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분별과 대결의 힘사를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역사로 바꾸고 새 세기 우리 민족의 통일대강을 환히 밝혀준 일대 사건으로서 온 거례와 전세계를 커다란 충격과 열광, 환호와 경탄으로 끌어번져 하였다.

6. 15와 그것이 가져온 경이적인 북남관계발전은 우리 민족끼리 순을 잡으면 이 세상에 무엇도 못해낼 일이 없으며 우리 민족의 주체적 힘으로 얼마든지 대결과 분별의 장벽을 마스고 평화의 기초, 근본조석을 허물어버렸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순수한 조국애와 민족애로부터 출발한 이 리념은 그 어느 일방의 주의주장이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며 더위가 그 누구를 배타하거나 누구와 담을 쌓는 식의 편협파는 인연이 없다.

파거 죄많은 당국자라고 하여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라고 하여 따돌리는 것도 없으며 대외관계도 존중하되 그것이 민족의 리익과 평화와 통일에 리로운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끼리》이다.

북과 남의 모든 계급, 계층이 평화롭게 잘살게 되는 통일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가자는 것이 누구에게나 좋으면 좋았지 나쁠것이 없다.

하기에 《우리 민족끼리》 리념에 대해 온 민족이 한결같이 지지찬성하였으며 남조선당국자도 동감을 표시하고 선언에 수표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 피뢰보수당은 민족공동의 통일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에 대해 처음부터 무력대고 《북의 전략》이니 뛰니 하고 악랄하게 협박을 유타더니 그날의 뜨거운 감격과 홍분은 간포 없고 이 땅에는 통족대결의 광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남관계를 외세와의 관계에 복종시킬겠다는 것을 선포하고 미

는 멀리 되돌려지고 일축죽발의 핵전쟁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북남관계가 어떻게 되어 대결의 파거로 되돌아가 과국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보수 《정권》이 혁신적인 6. 15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대결과 전쟁책동에 매달려온 때문이다.

지금 온 거레는 오랜 기간 피흘려 싸워 생취한 자주, 민주, 통일의 자랑찬 성파들이 매국역적파당에 의해 불과 3년 남짓한 사이에 그렇게 깡그리, 그렇게 처참하게 파괴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남조선집권당국은 무엇보다 6. 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 리념을 부정, 유린함으로써 북남관계의 기초, 근본조석을 허물어버렸다.

여도가 접련기간 가장 큰 성과는 《한미동맹관계를 복원》한 것이라고

하고 과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에 대해 《정상궤도》에 오른 것이라고 맹발한 이것이야말로 그의 극악한 친미시대, 반통일대결의식을 응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악명높은 《유신정권》 조차 말로라도 《민족자주》를 표방하였고 《문민정권》 역시 위선으로나마 《동맹국보다 민족이 우선》을 제창하였다면 리명박역도는 전행 《정권》이 《자주국방》의 구호밑에 되찾으려 한 피뢰군 전시작전지휘권을 상전에게 애걸하여 그 반환을 도로 연기시켰는가 하면

《남북관계를 한미관계속에서 다른가 같것》이라고 하면서 반공화국핵소동과 제재책동에 적극 추진해나섰다.

피뢰당은 지어 공식연설들과 문서들에서 민족이라는 말까지 쓰지 못하게 하고 《국민》으로 고쳐쓸것을 내리쳤다.

력대 남조선통치자들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떠들지 않은자 없고 대미 추종정책에 매달리지 않은자 없지만 리명박역적파당과 같이 민족보다 외세를 위에 놓고 외세우선론을 정책 간판으로 뻗쳐온 것이 내걸었으며 민족이라는 말도 쓰지 못하게 한 그처럼 쓸개빠진 사대국노는 처음이다.

남조선집권당국은 또한 6. 15공동선언의 정신과 요구에 어긋나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부정하고 동족대결, 체제대결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림으로써 북남사이의 불신을 극도로 조성하고 북남관계를 극단적인 적대관계

로 만들어놓았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협상을 활성화하고 헌법제통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그것을 구현한 6. 15공동선언의 기본내용, 기본요구이며 북남관계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피뢰보수당은 이 중요한 원칙적요구에 대해서도 전면부정하고 악랄하게 도전해나섰다.

리명박반통일파당은 감히 상대방제도에 대해 삼대질을 하면서 《변화》

나, 《개방》이니, 《인권》이니 떠들며 불순한 모략대결소동을 벌렸을뿐아

나라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체계 하의 통일》을 떠들면서 남의 나라 통일경험까지 수입하여 《흡수통일》 망상을 실현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6. 15 이후 줄기차게 진행되어온 여러 갈래의 대화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단절시킨 것도 피뢰당이고 핵문제요, 그 무슨 《사죄》요 하는 전제조건을 내세워 대화의 문에 빛장을 더 크게 지른 것도 여전히 도당이며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열린 대화들마저 다 결렬에로 물어놓은 것 역시 다름아닌 피뢰당국이다.

피뢰당의 대결모략책동으로 하여 온 민족에게 기쁨을 주던 금강산관광사업이 전면중단되고 개성공업지구가 된서리를 맞았으며 민간단체들의 교류와 접촉, 협력사업이 질식되었다.

온 겨레를 그처럼 흥분시키던 북남련결철도의 통일철차기적소리가 사라지고 평양과 서울, 백두산과 하나님께 높이 울리던 통일만세의 메아리도 더는 들을 수 없게 되었다.

피뢰당이 《기다리는 전략》이니, 《우보천리》니 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무엇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는지가 아말로 하늘의 해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개꿈이다.

더우기 리명박당이 감히 최고위급 대회까지 우롱한 오늘 이제 북남사이에 무슨 대화를 더 론할 여지가 있겠는가.

같은 민족이기는 고사하고 애당초 인간이기를 그만둔 피뢰당과 같은 횡포무한 악당이 민족의 중대사를 둔의하는 북남대화의 상대로 될수 없을 뿐아니라 우리 민족과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제반 사설들은 북남관계가 오늘의 파국에 처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6. 15를 유린, 말살하고 대결책동에 악랄하게

여러차례 오고갔지만 리명박당처럼 불순한 흥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존엄과 성의를 모독하며 모략과 대결책동에 광분한 국악한 반통일집단은 없다.

남조선집권당국은 또한 혁신적인 6. 15공동선언에 도전하여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과 전쟁책동에 매달려 조선반도위기로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아오르게 하였다.

혁신적인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에는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불가침의 의무를 준수하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할대 대한 문제를

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뢰보수당은 집권하자마자 북남선언들을 훼버리고 북을 함께 살아나갈 동족이 아니라 《주적》으로 선포하면서 군사적도발과 북침전쟁연습에 미쳐날뛰었다.

뿐만아니라 그 무슨 《급변사태》망상에 사로잡혀 《비상통치계획》이니 뛰니 하는 모략각본들을 짜놓고 실전훈련까지 벌렸다.

피뢰군부호전광들속에서는 선제공격폭언이 공공연히 울려나오고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망발이 피뢰집권자의 입에서까지 거침없이 튀어나오고있는 형편이다.

지난해에 있는 특대형모략국인 함선침몰사건과 평양도포격사건 그리고 그를 구실로 감행한 전쟁망란은 피뢰역적파당의 무분별성과 호전성을 집중적으로 고발해주고 있다.

더우기 피뢰군부호전광들이 감히 우리 최고선임을 진드리는 표적까지 만들어놓고 종란을 쏘아대는 천추에 용납못할 특대형도발을 감행한것은 동서고금의 역사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악만적이고 전인한 천하망동으로서 북남관계파탄책동의 최절정이다.

6. 15의 소중함을 너무도 사무치게 절감하고있고 6. 15에서 민족의 희망을 찾고있는 온 겨레는 남조선의 반통일페

대를 위한 반통일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6. 15시대의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할수 없고 평화와 통일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역적파당과 같은 한줄도 안되는 반통일분자들에 의해 6. 15가 몽락당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겨레의 발걸음이 지체되고있는것은 참으로 통란할 일이다.

통일과 반통일사이의 대결이 최정점에 이른 오늘의 첨예한 정세는 6. 15때가 얼마나 좋았으며 6. 15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것을 더욱 깊이 절감해 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층은 온 겨레와 함께 피뢰당의 반통일대결책동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 서 6. 15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리명박 《정권》 심판과 뇌진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지금 피뢰보수당이 사면초가의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단말마적발악을 하고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수치스러운 과정을 앞당기는것으로 뭘뿐이다.

온 민족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그 진리와 생명력,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혁신적인 6. 15공동선언은 역적파당의 훼방을 논다고 하여 그의와 영향력이 악화되는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늘의 현실은 6. 15의 전취물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뼈저린 교훈과 6. 15의 위엄을 기어이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지와 각오를 몇배나 더해주고있다.

6. 15의 소중함을 너무도 사무치게 절감하고있고 6. 15에서 민족의 희망을 찾고있는 온 겨레는 남조선의 반통일페당에게 비참한 종말을 선고하고 반드시 6. 15시대를 되찾아오고야말것이다.

6. 15에 우리 민족의 앞날이 있으며 자주도 있고 평화와 통일, 번영도 있다.

전체 조선민족은 국악한 사대매국노, 반통일페당을 단호히 쓸어버리고 6. 15의 혁신적인 6. 15공동선언을 통해 세계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펼칠것이다.

6. 15의 도도한 흐름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

론평원 (《로동신문》에서 전재)

6. 15평화통일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법민련) 남측본부가 6. 15평화통일민족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키기'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6. 15공동선언실천 남북통일민족대회에서 6. 15평화통일민족대회를 성대히 개최하기

온 성과들을 이룩하였다고 밝혔다.

법민련 남측본부는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이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한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공동선언이 한결같이 지지되었으며 남조선당국자도 동감을 표시하고 선언에 수표하였다.

법민련 남측본부는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이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한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공동선언이 한결같이 지지되었으며 남조선당국자도 동감을 표시하고 선언에 수표하였다.

법민련 남측본부는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이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한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공동선언이 한결같이 지지되었으며 남조선당국자도 동감을 표시하고 선언에 수표하였다.

법민련 남측본부는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이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한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공동선언이 한결같이 지지되었으며 남조선당국자도 동감을 표시하고 선언에 수표하였다.

법민련 남측본부는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이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한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공동선언이 한결같이 지지되었으며 남조선당국자도 동감을 표시하고 선언에 수표하였다.

법민련 남측본부는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이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한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공동선언이 한결같이 지지되었으며 남조선당국자도 동감을 표시하고 선언에 수표하였다.

법민련 남측본부는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이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한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공동선언이 한결같이 지지되었으며 남조선당국자도 동감을 표시하고 선언에 수표하였다.

법민련 남측본부는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이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한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공동선언이 한결같이 지지되었으며 남조선당국자도 동감을 표시하고 선언에 수표하였다.

법민련 남측본부는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이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한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공동선언이 한결같이 지지되었으며 남조선당국자도 동감을 표시하고 선언에 수표하였다.

법민련 남측본부는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이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한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공동선언이 한결같이 지지되었으며 남조선당국자도 동감을 표시하고 선언에 수표하였다.

법민련 남측본부는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이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한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공동선언이 한결같이 지지되었으며 남조선당국자도 동감을 표시하고 선언에 수표하였다.

법민련 남측본부는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이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한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공동선언이 한결같이 지지되었으며 남조선당국자도 동감을 표시하고 선언에 수표하였다.

법민련 남측본부는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이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한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공동선언이 한결같이 지지되었으며 남조선당국자도 동감을 표시하고 선언에 수표하였다.

법민련 남측본부는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이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한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공동선언이 한결같이 지지되었으며 남조선당국자도 동감을 표시하고 선언에 수표하였다

6. 15 공동선언의 행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영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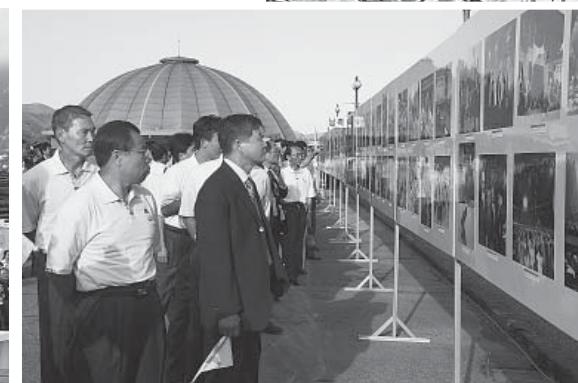
6. 15 공동선언 발표 7돐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장 [주체96(2007)년 6월]



조국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 [주체89(2000)년 9월]



어깨결고 달리는 북과 남의 농민들 [주체93(2004)년 6월]



↑ 6. 15 공동선언 발표 8돐기념 북, 남, 해외공동 사진전시회 진행 [주체97(2008)년 6월]
← 6. 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속문화축전 진행 [주체94(2005)년 9월]



6. 15 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2004년 북남로동자 5. 1절통일대회



금강산을 관광하는 남녘동포들 [주체96(2007)년 10월]



→ 북남철도련결 구간 철차시험 운행 진행 [주체96(2007)년 5월]



↑ 개성 공업지구 건설 착공식 진행 [주체92(2003)년 6월]
← 제22차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서 공동입장하는 북과 남의 선수들 [주체92(2003)년 8월]



북남관계를 화국으로 몰아간

《비핵, 개방, 3 000》

력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1돐이 되여오는 지금 북남관계는 최악의 위기에 처하고 전쟁위험만이 절경 감돌고있다.

이것은 리명박《정권》의 《원칙있는 대북정책》, 동족대결정책이 초래한 후파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현 남조선보수당국의 《대북정책》의 꿀자는 《비핵, 개방 3 000》이다.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하면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동족에 대한 국도의 적대시, 대결정책이다.

《핵포기》가 미국의 범죄적인 핵소동에 추종하여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개혁, 개방》이 북에 자유화바람을 불어넣어 종국적으로 《흡수통일》의 망상을 이루기 위한 요구라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하여 그들의 《대북정책》은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한 사대국론이며 뒤집어놓은 북침전쟁론이다.

남조선에서 6월 13일은 시민단체들이 선포한 《미군없는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바로 이날 전쟁연습에 돌아친던 군수수들은 동무의 생활을 축복해주려고 길을 가던 나에게 미선이와 호순이를 장갑차로 깔아죽이는 치밀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당시 미국은 살인들을 여러탕이나 끼고 감싸고 돌다가 《무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본국으로 빠돌리였다.

이에 분노한 민심은 남조선전역에서 반미투쟁의 초불을 촉引发하였다. 그것은 나에게 두 녀학생을 위한 추모의 초불이였고 미군을 물어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찾기 위한 반미의 활화산이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훌쩍 간 창간도 변하였지만 두 녀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보수당국은 공화국이 도저히 접수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대북정책》,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북남관계에서 시종일관 갖은 장애를 조성하고 대결하고 압박하는 정책을 펴왔다.

《핵을 이고 통일로 나갈 수 없고 남북관계도 힘들다.》는 대결망언을 일삼으면서 이미 진행되어온 북남대화도 모조리 중단하고 협력, 교류사업에도 차단봉을 내리었으며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도 가로막아나섰다.

그러나 남조선의 함께 동족에 대한 제재소동에 매달리고 침략적인 합동전쟁연습을 매일같이 벌려놓아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경계로 몰아갔다.

지난해에는 특대형 모략극인 《천안》호사건을 날조하고 연평도포격도발을 일으켜 서해바다를 총포성 울부짖는 전쟁의 바다로까지 만들었다.

현실은 남조선보수당국이

《비핵, 개방, 3 000》을 한 사고 고집하면서 《원칙》을 떠들어온것이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위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고 전쟁의 불길을 터치기 위한 계획적이며 악랄한 동족대결 소동이었음을 여실히 실증해 주고있다.

남조선 각계에서 집권 3년 이 지난 오늘 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단죄한하며 그것을 하루빨리 철회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최근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전쟁연습마다 공화국의 체제를 험악한 구호와 선전물을 내걸고 지어 우리 민족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는 표적물을 걸치하고 충란을 죄송하게 쟁취하는 것은 그들의 대결망동이 어느정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범죄적인 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지경에 몰아넣은것도 성차지 않아 공화국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는 리명박보수당의 최악은 반드시 결산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용철

생의 원한은 오늘까지도 풀어주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미국의 횡포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수십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폭로된 남조선강점 미군의 고엽제재물사건이 그것을 다시 한번 실증해 준다.

미국이 경상북도 철곡군

조선인민들의 운명은 파리파 솜만도 치부하지 않는 강점군의 오만성이 낳은 죄악이다.

미군은 이 범죄사실을 모른다고 뻔대다가 여러 체험자들과 목격자, 여러 문서들에 의해 속속 확증되자 부랴부랴 《조사》나 뛰어 하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그 《조사》라는 것도 저들의 범죄를 인정된다.

본사기자 김정혁

생의 원한은 오늘까지도 풀어주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미국의 횡포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수십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폭로된 남조선강점 미군의 고엽제재물사건이 그것을 다시 한번 실증해 준다.

미국이 경상북도 철곡군

생의 원한은 오늘까지도 풀어주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미국의 횡포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미군은 이 범죄사실을 모른다고 뻔대다가 여러 체험자들과 목격자, 여러 문서들에 의해 속속 확증되자 부랴부랴 《조사》나 뛰어 하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그 《조사》라는 것도 저들의 범죄를 인정된다.

본사기자 김정혁

생의 원한은 오늘까지도 풀어주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미국의 횡포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미군은 이 범죄사실을 모른다고 뻔대다가 여러 체험자들과 목격자, 여러 문서들에 의해 속속 확증되자 부랴부랴 《조사》나 뛰어 하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그 《조사》라는 것도 저들의 범죄를 인정된다.

본사기자 김정혁

생의 원한은 오늘까지도 풀어주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미국의 횡포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수십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폭로된 남조선강점 미군의 고엽제재물사건이 그것을 다시 한번 실증해 준다.

미국이 경상북도 철곡군

생의 원한은 오늘까지도 풀어주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미국의 횡포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미군은 이 범죄사실을 모른다고 뻔대다가 여러 체험자들과 목격자, 여러 문서들에 의해 속속 확증되자 부랴부랴 《조사》나 뛰어 하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그 《조사》라는 것도 저들의 범죄를 인정된다.

본사기자 김정혁

생의 원한은 오늘까지도 풀어주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미국의 횡포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미군은 이 범죄사실을 모른다고 뻔대다가 여러 체험자들과 목격자, 여러 문서들에 의해 속속 확증되자 부랴부랴 《조사》나 뛰어 하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그 《조사》라는 것도 저들의 범죄를 인정된다.

본사기자 김정혁

생의 원한은 오늘까지도 풀어주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미국의 횡포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미군은 이 범죄사실을 모른다고 뻔대다가 여러 체험자들과 목격자, 여러 문서들에 의해 속속 확증되자 부랴부랴 《조사》나 뛰어 하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그 《조사》라는 것도 저들의 범죄를 인정된다.

본사기자 김정혁

생의 원한은 오늘까지도 풀어주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미국의 횡포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미군은 이 범죄사실을 모른다고 뻔대다가 여러 체험자들과 목격자, 여러 문서들에 의해 속속 확증되자 부랴부랴 《조사》나 뛰어 하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그 《조사》라는 것도 저들의 범죄를 인정된다.

본사기자 김정혁

생의 원한은 오늘까지도 풀어주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미국의 횡포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미군은 이 범죄사실을 모른다고 뻔대다가 여러 체험자들과 목격자, 여러 문서들에 의해 속속 확증되자 부랴부랴 《조사》나 뛰어 하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그 《조사》라는 것도 저들의 범죄를 인정된다.

본사기자 김정혁

생의 원한은 오늘까지도 풀어주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미국의 횡포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미군은 이 범죄사실을 모른다고 뻔대다가 여러 체험자들과 목격자, 여러 문서들에 의해 속속 확증되자 부랴부랴 《조사》나 뛰어 하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그 《조사》라는 것도 저들의 범죄를 인정된다.

본사기자 김정혁

생의 원한은 오늘까지도 풀어주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미국의 횡포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미군은 이 범죄사실을 모른다고 뻔대다가 여러 체험자들과 목격자, 여러 문서들에 의해 속속 확증되자 부랴부랴 《조사》나 뛰어 하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그 《조사》라는 것도 저들의 범죄를 인정된다.

본사기자 김정혁

생의 원한은 오늘까지도 풀어주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미국의 횡포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미군은 이 범죄사실을 모른다고 뻔대다가 여러 체험자들과 목격자, 여러 문서들에 의해 속속 확증되자 부랴부랴 《조사》나 뛰어 하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그 《조사》라는 것도 저들의 범죄를 인정된다.

본사기자 김정혁

생의 원한은 오늘까지도 풀어주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미국의 횡포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미군은 이 범죄사실을 모른다고 뻔대다가 여러 체험자들과 목격자, 여러 문서들에 의해 속속 확증되자 부랴부랴 《조사》나 뛰어 하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그 《조사》라는 것도 저들의 범죄를 인정된다.

본사기자 김정혁

생의 원한은 오늘까지도 풀어주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미국의 횡포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미군은 이 범죄사실을 모른다고 뻔대다가 여러 체험자들과 목격자, 여러 문서들에 의해 속속 확증되자 부랴부랴 《조사》나 뛰어 하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그 《조사》라는 것도 저들의 범죄를 인정된다.

본사기자 김정혁

생의 원한은 오늘까지도 풀어주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미국의 횡포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미군은 이 범죄사실을 모른다고 뻔대다가 여러 체험자들과 목격자, 여러 문서들에 의해 속속 확증되자 부랴부랴 《조사》나 뛰어 하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그 《조사》라는 것도 저들의 범죄를 인정된다.

본사기자 김정혁

생의 원한은 오늘까지도 풀어주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미국의 횡포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미군은 이 범죄사실을 모른다고 뻔대다가 여러 체험자들과 목격자, 여러 문서들에 의해 속속 확증되자 부랴부랴 《조사》나 뛰어 하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그 《조사》라는 것도 저들의 범죄를 인정된다.

본사기자 김정혁

생의 원한은 오늘까지도 풀어주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미국의 횡포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미군은 이 범죄사실을 모른다고 뻔대다가 여러 체험자들과 목격자, 여러 문서들에 의해 속속 확증되자 부랴부랴 《조사》나 뛰어 하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그 《조사》라는 것도 저들의 범죄를 인정된다.

본사기자 김정혁

생의 원한은 오늘까지도 풀어주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미국의 횡포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미군은 이 범죄사실을 모른다고 뻔대다가 여러 체험자들과 목격자, 여러 문서들에 의해 속속 확증되자 부랴부랴 《조사》나 뛰어 하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그 《조사》라는 것도 저들의 범죄를 인정된다.

본사기자 김정혁

생의 원한은 오늘까지도 풀어주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미국의 횡포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미군은 이 범죄사실을 모른다고 뻔대다가 여러 체험자들과 목격자, 여러 문서들에 의해 속속 확증되자 부랴부랴 《조사》나 뛰어 하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그 《조사》라는 것도 저들의 범죄를 인정된다.

본사기자 김정혁

생의 원한은 오늘까지도 풀어주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미국의 횡포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미군은 이 범죄사실을 모른다고 뻔대다가 여러 체험자들과 목격자, 여러 문서들에 의해 속속 확증되자 부랴부랴 《조사》나 뛰어 하고 떠들